

# 직전보강 노트 - 그 여름의 끝 / 그 나무 (이성복 / 김명인)

핵심정리 + 구조분석 + 핵심함정 + 변형문항

## 작품 원문

긍정

부정

함축/상징

표현방식

화자/인물

형식장치

(가)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 시련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은 백일홍의 모습을 나타낸다. '무사하였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어조를 띤다.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 백일홍이 피워낸 강렬한 생명력을 직유법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 화자 역시 시련(절망) 속에 있었으나, 백일홍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붉은 꽃)을 품었음을 나타낸다. 백일홍과 화자의 상황이 대응된다.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 화자 또한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냈음을 고백한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  
| 낙화하는 순간까지도 치열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백일홍의 모습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한다.

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백일홍의 치열한 생명력을 보며 화자 역시 절망을 극복하고 내면적 상처를 치유했음을 의미한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나)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 일반적인 벚나무들의 개화와 낙화 과정을 나타낸다.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 화자가 길을 걸으며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상황이다.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 다른 나무들과 달리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의 안타까운 상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 화자의 관찰 대상이자 시적 대상인 '늦된 그 나무'를 발견한다. '~지요'라는 종결어미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한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하여 의인법을 사용한다.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다.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 건강한 다른 나무들(아름드리)에 가려져 위축된 나무의 모습을 나타낸다.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 다른 나무들과 달리 성장이 늦은 나무의 처지를 강조한다.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개화 시기를 놓쳐버린 나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시선이 담겨 있다.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비록 늦었지만 꽃을 피우려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나무의 꽃봉오리(명을)를 보며 화자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늦된 나무가 마침내 피워낼 꽃을 환하고 성스러운 불꽃(꽃불 성화)에 비유(은유법)하여 기대감을 드러낸다.

환하게 타오를 것 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나무가 언젠가 훌륭하게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화자도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늦된 나무의 생명력과 가능성에 감동하여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화자 역시 현실에서 방황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처지였음을 고백한다.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화자의 방황과 시련의 공간이자 시간적 배경이다.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늦된 나무가 꽃을 피우듯, 화자 자신도 방황 끝에 삶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화자와 나무의 동일시.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며 곁에 머무는 화자의 모습이다.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나무가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의문형 어미로 표현한다.

무거운 청록 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시간이 흘러 여름이 깊어가는 상황을 시각적 이미지(무거운 청록)로 나타낸다.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다른 나무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삶(소신공양) 틈에서, 늦된 나무가 피워내는 작고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소지)을 비유(은유)한다.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늦된 나무가 마침내 자신의 꽃(깨달음, 생명력)을 피워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 시상을 마무리한다.

- 김명인, 「그 나무」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핵심정리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예찬적                                                 |
| 제재 | (가) 백일홍, (나) 늦된 벚나무                                           |
| 주제 | (가)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 (나)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과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

## 특징

(가)는 대상(백일홍)과 화자의 상황을 대응시켜 시상을 전개함, (나)는 의인화된 대상(나무)에 화자를 투영하여 동질감을 형성함, 두 작품 모두 경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고백적 어조를 드러냄

## 구조 분석

(가)

1~2행: 폭풍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운 백일홍

3~4행: 폭풍(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화자

5~6행: 백일홍의 역센 생명력을 보며 절망을 극복함

(나)

1~7행: 꽃을 피우지 못하고 숨어 있는 늦된 나무 발견

8~11행: 늦된 나무의 명운을 보며 느끼는 안쓰러움

12~14행: 늦된 나무가 피워낼 꽃불 성화에 대한 기대

15~18행: 방황하던 화자가 나무에게서 늦깎이 깨달음을 얻고자 함

19~22행: 늦된 나무가 꽃(소지)을 피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함

## 표현상의 특징

- (가)와 (나) 모두 경어체 종결어미('습니다', '-지요', '-까요')를 반복 사용하여 차분하고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함.
- (가)는 '백일홍'과 '나', '폭풍'과 '절망'을 대응시켜 자연물의 속성을 화자의 내면으로 치환함.
- (가)는 시각적 이미지('붉은 꽃', '피로 덮을 때')를 통해 대상의 강렬한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함.
- (나)는 시적 대상인 나무를 의인화('부끄러운지', '숨어 있었지요')하여 화자의 연민과 동질감을 부각함.
- (나)는 은유법('꽃불 성화', '가난한 소지')을 사용하여 나무가 피워낼 꽃의 가치와 간절함을 표현함.

## 시어/시구의 의미

폭풍 → 표면적 의미: 자연재해인 거센 비바람 / 이면적 의미: 삶의 시련과 고난, 절망적 상황

붉은 꽃 → 표면적 의미: 백일홍이 피워낸 꽃 / 이면적 의미: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

늦된 그 나무 → 표면적 의미: 개화 시기를 놓친 병든 벚나무 / 이면적 의미: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 방황하는 화자 자신

꽃불 성화 → 표면적 의미: 늦된 나무가 피워낼 꽃 / 이면적 의미: 시련 끝에 얻게 될 값진 깨달음과 생명력

가난한 소지 → 표면적 의미: 늦된 나무가 피워낼 작고 소박한 꽃 / 이면적 의미: 비록 늦고 초라하지만 간절한 기원과 생명의 발현

## 핵심함정

### 학생 빈출 오답 포인트

1. (가)에서 화자가 자연물과 대조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 X. 화자는 시련(폭풍/절망)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일홍과 동질적(대응)인 처지에 있다.
2. (나)의 화자는 '늦된 그 나무'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 X. 화자는 나무에게서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나무가 꽃을 피우듯 자신도 '늦깎이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3.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X. 두 작품 모두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직유와 시각적 이미지, (나)는 의인과 은유를 주로 사용하였다.
4. (나)의 '소신공양'은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의미한다. → X. '소신공양'은 건강한 다른 나무들이 뽑어내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생명력(무성한 잎과 꽃)을 비유한 것이지, 화자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변형문항 13제

A1

핵심함정

윗글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에서 화자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자연물이 처한 상황을 차분하게 고백하고 있다.
- ②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에서 백일홍이 외부의 거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에서 화자 역시 백일홍과 마찬가지로 삶의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백일홍의 긍정적 처지와 대조되는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 ⑤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적 절망과 시련에 맞서 견뎌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2

핵심함정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에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무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자조하고 있다.
- ②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에서 화자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도피하려는 나무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에서 개화 시기를 놓친 나무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화자 자신의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에서 화자는 나무가 피워낼 꽃의 가능성에 감동하여 방향을 멈추고 몰입하고 있다.
- ⑤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 헤매고 다녔던'에서 화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며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A3****핵심함정**

윗글의 (나)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에서 건강하고 무성한 다른 나무들과 대비되어 더욱 위축된 늦된 나무의 소외된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에서 비록 개화 시기는 늦었지만 꽃을 피우고자 하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 ③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에서 마침내 나무가 피워낼 꽃을 성스럽고 환한 불꽃에 비유하여 대상에 대한 기대감과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에서 방황하던 화자가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삶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불타는 소신평양 틈새 가난한 소지'에서 '소신평양'은 늦은 시기에 비로소 꽃을 피우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화자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B1****내신형**

(가)와 (나)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와 (나)의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은 모두 대상이 지닌 일시적이고 허무한 생명력의 소멸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와 (나)의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는 모두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화자의 초월적 의지를 보여준다.
- ③ (가)의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와 (나)의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강렬한 생명력이나 계절의 심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시다'와 (나)의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는 모두 화자가 겪은 내면적 상처가 타인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원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가)의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과 (나)의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는 모두 화자가 자연물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투사하여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B2****내신형**

윗글의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와 (나)의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를 통해 두 화자 모두 관찰의 대상을 발견한 후 거리를 두며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시다'와 (나)의 '제자릴 찾지 못해 / 해매고 다녔던'을 통해 두 화자 모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과 (나)의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을 통해 두 화자 모두 대상이 보여주는 생명력에 주목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나의 절망은 끝났습시다'와 (나)의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를 통해 두 화자 모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비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와 (나)의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를 통해 두 화자 모두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인격적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공감을 유발한다.

[직유법] '같이',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은유법] 'A는 B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상의 숨겨진 의미나 가치를 강조한다.

- ① (가)의 '쏟아지는 /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백일홍이 무수히 쏟아내듯 피워낸 꽃의 강렬함과 역동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의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가 겪은 극심한 절망이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시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의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의 위축된 심리를 표현하며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나)의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늦게 피어나는 나무의 꽃이 지나는 숭고하고 성스러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의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다른 나무들의 화려한 생명력 틈에서 피어나는 늦된 나무의 소박하고 간절한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 B4 내신형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는 '폭풍'과 '붉은 꽃'의 대비를 통해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 ㄴ. (나)는 '난만한 봄길'과 '무거운 청록'의 시각적 묘사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ㄷ. (가)와 (나)는 모두 종결어미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고백적인 어조를 조성하고 있다.
- ㄹ. (가)의 '폭풍의 한가운데'와 (나)의 '제자릴 찾지 못해 / 해매고 다녔던'은 모두 화자가 처했던 부정적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 ㅁ. (가)의 '두어 평 좁은 마당'과 (나)의 '시멘트 개울 한 구석'은 모두 화자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평화로운 도피처를 상징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 C1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문학에서 자연물은 종종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특히 생태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시에서 화자는 자연의 섭리나 미물들의 생명 현상을 관찰하며 인간 삶의 진실을 유추해 낸다. (가)의 화자는 맹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본연의 생명 활동을 완수하는 식물의 역동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절망을 치유하는 힘을 얻는다. 한편 (나)의 화자는 정상적인 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식물의 모습을 관찰하며, 세상의 잣대에 미치지 못해 방황하는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늦게 발현되는 생명력의 가치를 긍정하고 삶의 위안과 깨달음을 구하게 된다.

- ① (가)의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맹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 활동을 치열하게 완수하는 식물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는 화자가 백일홍의 역센 생명력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의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는 정상적인 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소외된 식물의 안타까운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나)의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는 세상의 잣대에 미치지 못해 방황하던 화자가 소외된 자연물에 자신을 투영하여 삶의 위안을 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는 늦게 발현되는 생명력의 가치를 긍정하는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인위적으로라도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입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C2 수능형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시적 화자는 종종 외부 세계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

유형 A는 '대비와 각성'의 메커니즘이다. 화자는 가혹한 시련에 맞서는 대상의 결연한 자태를 통해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대상이 보여주는 극복의 에너지를 수용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한다.

유형 B는 '연민과 동일시'의 메커니즘이다. 화자는 결핍이나 상처를 지닌 대상에게서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연민을 느낀다. 대상이 결핍을 견디며 조용히 품고 있는 내적 가능성을 응원함으로써, 화자 역시 자신의 상처를 긍정하고 치유에 이르게 된다.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① (가)의 화자가 '폭풍'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는 백일홍을 보며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상이 보여주는 극복의 에너지를 수용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한 유형 A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있는 나무의 '명울'을 보며 '어딘가 안쓰러웠지요'라고 느끼는 것은, 상처를 지닌 대상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유형 B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가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혹한 시련에 맞서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 자신이 지녔던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내면 상태를 반성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방황했던 사실을 고백하며 나무 곁에 머무는 것은, 결핍을 지닌 대상에게서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여 동일시하는 유형 B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가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리기를 소망하는 것은, 대상이 결핍 속에서도 품고 있는 내적 가능성(생명력)을 응원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상처까지도 긍정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E1 표현기법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무사하였습니다', '앓았습니다' 등의 대구적 표현을 교차하여 화자의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 ② (나)는 시상의 흐름에 따라 시선의 이동을 활용하여 대상의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모순 형용을 통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비극적 운명을 미학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④ (가)는 '붉은 꽃들'과 '피' 등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강렬하고 치열한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나)는 명령적 어조와 영탄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소외된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는 화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 D1 서술형

(가)와 (나)에 등장하는 다음 시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 < 조건 >

1. 15자 이내의 하나의 명사구 형태로 작성할 것.
2.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할 것.

### D2 서술형

(나)의 밑줄 친 '늦깎이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를 화자의 상황과 시적 대상(나무)의 상황을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 < 조건 >

1. 화자의 상황(방향)과 나무의 상황(개화 지연)을 각각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각 2점)
2.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을 '생명력'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2점)
3. 전체 문장은 한 문장으로 완성할 것. (1점)

### D3 서술형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와 주제 의식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 < 조건 >

1. 화자가 자연물(백일홍, 늦된 나무)을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을 서술할 것. (자신과 동일시 또는 내면 투영) (3점)
2. 자연물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속성을 서술할 것.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생명력) (3점)
3.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를 '위로' 또는 '극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4점)
4. 두 문장 이상 세 문장 이하로 작성할 것.

## 정답과 해설

### A1 핵심합정 ④

④ (가)의 화자는 폭풍(절망) 속에서도 붉은 꽃을 매단 백일홍처럼, 자신 역시 절망 속에서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화자와 자연물이 대조적인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질적(대응)인 처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 A2 핵심합정 ④

④ 화자는 늙은 나무가 마침내 피워낼 '꽃불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자신의 길이 끝난 줄도 잊은 채 감동하여 멈춰 서 있다. ①, ⑤ 화자는 나무를 보며 자조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동질감을 느낀다. ② 나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 위축된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③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시선이다.

### A3 핵심합정 ⑤

⑤ '소신공양'은 여름날 다른 건강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왕성하고 화려하며 열정적인 생명력(무성한 잎과 꽃)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는 늙은 나무가 피워낼 작고 소박한 생명력인 '가난한 소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B1 내신형 ③

③ (가)는 낙화하는 백일홍의 모습을 '피로 덮을 때'라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나)는 깊어가는 여름의 정경을 '무거운 청록'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① (가)의 붉은 꽃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② (나)의 구절은 화자의 초월적 의지가 아니라 나무의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④ 원망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 B2 내신형 ③

③ (가)의 화자는 폭풍 속에서도 피어나는 백일홍의 역센 꽃(생명력)에 주목하여 절망을 극복하고, (나)의 화자는 늦은 시기에도 꽃을 피우려 애쓰는 나무의 명울(생명력)에 주목하며 연민과 기대를 보낸다. ① 두 화자 모두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내면을 투영하며 주관적 태도를 보인다. ② 체념이 아니라 극복 의지와 소망을 보인다. ④ 현실 도피나 비판적 인식이 아니다. ⑤ 재앙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 B3 내신형 ②

② (가)에서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은 절망이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화자가 겪은 절망이 매우 깊고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난을 치듯 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희망(붉은 꽃)을 품어냈음을 직유법을 통해 역설적 뉘앙스로 표현한 것이다. 시련의 가벼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 B4 내신형 ③

ㄱ. (가)에서 폭풍(시련)과 붉은 꽃(생명력/희망)의 대비는 강인한 생명력을 부각한다. (적절)  
ㄴ. (나)의 '난만한 봄길'과 '무거운 청록'은 계절의 변화와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부적절)  
ㄷ. (가)는 '-습니다', (나)는 '-지요', '-까요' 등의 반복을 통해 고백적 어조와 운율을 형성한다. (적절)  
ㄹ. '폭풍의 한가운데'와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은 화자의 방황과 시련을 의미한다. (적절)  
ㅁ. '두어 평 좁은 마당'과 '시멘트 개울 한 구석'은 이상향이나 도피처가 아니라, 생명력이 발현되는 비좁고 열악한 현실적 공간을 의미한다. (부적절)  
따라서 적절한 것은 ㄱ, ㄷ, ㄹ이다.

## C1 수능형 ⑤

⑤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는 늦된 나무가 마침내 자신의 꽃을 피워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소망과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입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보기>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작품의 맥락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명백한 오답이다.

## C2 수능형 ③

③ (가)의 화자는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에 이어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다. 즉, 화자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 낙관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일홍과 마찬가지로 시련(폭풍) 속에서도 붉은 꽃(희망)을 매달며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고 있었다. 따라서 낙관했던 모습을 반성한다는 설명은 원문의 사실적 진술과 모순된다.

## E1 표현기법 ④

④ (가)는 '붉은 꽃들', '타올라 불을 뿜는', '피로 덮을 때' 등의 강렬한 붉은색 계열의 색채 이미지와 역동적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백일홍이 낙화하는 순간까지 보여주는 치열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① 대구법 교차가 아니며, 경어체를 통해 차분한 어조를 띤다. ②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나, 긍정에서 부정으로의 변모는 틀린 설명이다. ③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지요', '-까요' 등 부드러운 경어체를 사용하였으며, 명령적 어조나 권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 D1 서술형

**[모범답안]**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

(가)의 '붉은 꽃들'은 폭풍을 견뎌낸 백일홍의 생명력을, (나)의 '꽃불 성화'와 '가난한 소지'는 늦은 시기지만 나무가 피워낼 간절하고 승고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시련과 소외 속에서도 발현되는 생명력을 뜻한다. 조건에 맞춰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 등으로 작성하면 정답 인정.

## D2 서술형

**[모범답안]**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화자가 개화 시기를 놓친 나무가 늦게라도 꽃을 피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늦더라도 잃지 말아야 할 삶의 희망과 생명력의 가치에 대해 얻게 된 깨달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으며, 나무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제때 꽃을 피우지 못했다. 화자는 이러한 나무가 끝내 피워낼 '꽃불 성화(생명력/희망)'를 기다리며 자신 역시 방향을 끝내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자 한다. 조건에 맞게 작성하면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 D3 서술형

**[모범답안]**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인 자연물의 처지에 자신의 내면과 상황을 투영하여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자연물은 모두 외부의 시련이나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꽃을 피워내려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내면적 절망이나 방향을 극복하고 삶의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다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폭풍 속 백일홍의 생명력에 자신의 절망 극복을 투영하고, (나)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명운에 자신의 방향과 깨달음을 투영한다. 자연물과의 동일시, 자연물의 강인한 생명력 발현, 이를 통한 화자의 내면 상처 극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건에 맞게 서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문장 수 제한 위반 시 감점.